

##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魯論)\*

이 예 성\*\* · 이 강 재\*\*\*

### [초 록]

본고는 청대 유보남(劉寶楠)의 『논어정의』(論語正義)에 인용된 노론(魯論)을 통해, 이문(異文)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漢)나라 초기의 『논어』 텍스트로는 노론(魯論), 제론(齊論), 고론(古論)의 세 가지 논어가 있었으며, 그중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은 노론이다. 한대의 장우(張禹)와 정현(鄭玄) 등이 노론을 기초로 하여 제론과 고론을 흡수하여 교수한 논어를 편찬한 이후, 이 세 가지 논어는 하나로 통합되었고 각 텍스트의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유보남의 『논어정의』는 문헌학적 의미가 매우 큰데, 이는 한나라부터 청나라 때까지의 역대의 풍부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12월 2일 한국교통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劉寶楠 『論語正義』에 나타난 魯論」이라는 제목의 초고형식으로 구두 발표한 바 있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주제어: 유보남, 『논어정의』, 노론, 제론, 고론, 이문(異文), 고증학, 양주학파  
Liu Baonan, *Lunyuzhengyi* (論語正義), Lu Edition, Qi Edition, Old Edition,  
Textual Criticism in Qing Dynasty, Difference of Scripture, Yangzhou School

『논어』에 대한 주소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책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 노론과 고론, 제론을 비교하여 그 같고 다를 고 찰하였다. 문자, 음운, 의미적 차이에 주목하여 세부 분석을 통해 노론 이문의 구체적인 유형을 귀납하였다. 이와 동시에 본고는 『논어정의』와 청대 고증학의 학술적 성과에 대해 논술하였다.

## 1. 들어가면서

본고는 청대 간행된 유보남(劉寶楠, 1791~1855)의 『논어정의』(論語正義)<sup>1)</sup>에 보이는 노론(魯論)에 대한 언급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노론이 현재의 통행본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논어』의 이해에 있어서 어떤 학술적인 가치를 갖는 것인지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논어』는 유가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간백(簡帛), 필사본, 목판본 등의 다양한 텍스트가 있었다. 이 중 서한(西漢) 초기에 노론과 제론(齊論)이 널리 유통되었고, 노공왕(魯恭王) 유여(劉餘, ?~ B.C.128) 때 공벽(孔壁)에서 ‘고론’(古論)이 발견되면서,<sup>2)</sup> 이들을 합쳐 ‘삼론’(三論)이라 불렀다.

노론에 대한 역대 기술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한서』(漢書)「예문

- 
- 1) 『논어정의』는 유보남의 아들 유공면(劉恭冕)의 보충과 정리를 거쳤기 때문에 유보남 단독 저서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유보남의 저작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 아래에서 『논어정의』의 내용을 기술할 때 유보남의 견해라고 썼다.
  - 2) 공벽에서 고론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呂思勉, 陳開先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기』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 공자 신봉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벽을 부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책이 벽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唐明貴(2009:92-99)의 견해를 참고할 것. 본고에서는 일단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미루고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공벽에서 고론이 나온 것을 전제로 진행할 것이다.

지(藝文志)에서 당시 12종류의 『논어』 텍스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나라 때에 노론, 제론, 고론이 모두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한의 장우(張禹, ?~B.C.5?)가 노론을 바탕으로 제론을 취하여 ‘장후론’(張侯論)을 편찬한 것도 노론이 중시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후론’은 소실되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후대에 전해지는 통행본이 장우의 『논어』를 근간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을 볼 때, 노론이 한대부터 가장 중요한 텍스트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장후론이 노론과 제론을 대체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논어』 텍스트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sup>3)</sup>

동한시기 정현(鄭玄, 127~200)의 『논어주』(論語注)에 대해, 하안(何晏)의 『논어집해』(論語集解)의 서문에서는 “한나라 말에 대사농(大司農) 정현이 노론 편장에 의거하여, 제론과 고론을 고찰하여 주를 달았다.”<sup>4)</sup>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후 수·당 시기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논어음의」(論語音義)에서 정현의 주를 인용하면서, 노론이 고론이나 제론과 다르게 읽는 것을 정리하여 모두 23조목(24개)<sup>5)</sup>을 제시하였다. 송(宋), 원(元), 명(明) 시대에는 이학의 이념이 중시되었기에, 『논어』에 대한 문헌학이나 교감학적 연구 성과가 중시되지 않았다. 단지 명대 후기 일부 학자들의 저서에서 노론 관련 정현의 주를 인용하거나, 이문을 단순 정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진사원(陳士元, 1516~1597)의 『논어유고』(論語類考), 진우모(陳禹謨, 1548~1618)의 『병지』(駢志), 동사장(董斯張, 1587~1628)의 『취경집』(吹景集) 등이 그에 속한다.

3) 『한서』「장우전」, “배우는 사람들이 거의 장우의 『논어』를 따르게 되어, 다른 『논어』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學者多從張氏, 餘家寢微.]

4) “漢末大司農鄭玄, 就魯論篇章, 考之齊古爲之注.”

5) 모두 24개의 노독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중 ‘詠而歸’와 ‘歸孔子豚’ 구절에서 ‘歸’가 두 번 설명되었기에 이를 하나의 조목으로 간주한다면 23조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청(淸)의 건륭(乾隆, 1735~1795)과 가경(嘉慶, 1796~1820) 시기에 이르러, 노론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배경은 청대 건가학풍이 주관성을 배제하고 증거를 찾아 경전을 분석하는 것을 중시 하였기에 양한 텍스트였던 노론에 주목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청대에 노론을 논의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혜동(惠棟, 1697~1758)의 『구경고의』(九經古義), 적호(翟灝, 1736~1788)의 『사서고이』(四書考異), 진전(陳鱣, 1753~1817)의 『논어고훈』(論語古訓), 풍등부(馮登府, 1783~1841)의 『논어이문고증』(論語異文考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서양원(徐養原, 1758~1825)의 『논어노독고』(論語魯讀考)는 노론을 교감한 전문 저서로서, 구체적인 분석과 논증을 통해 노론과 고론뿐 아니라 제론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시도하였다. 청대까지의 노론에 대한 연구<sup>6)</sup>는 유보남의 『논어정의』에 이르러 기존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논어정의』에서 직접 노론이라고 언급한 구절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고론 또는 제론과의 비교를 통해 노론의 이문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러한 차이가 반영하는 노론의 학술사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한 초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으나, 점차 원형을 잃어갔던 노론이 청대에 이르러 다시 재조명되었던 학술적 사건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국내 학계에는 다수의 논어 관련 서적과 연구가 있었지만, 노론, 제론, 고론의 삼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는 국내 학계가 선진문헌에 대한 문헌학 및 고증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시도하는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에 대한 연구는 논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이면서 동시에 국내 학술

6) 한나라부터 청나라 때까지의 노론에 대한 연구사는 편목의 제한 때문에 이후 별도의 논문으로 작성하려고 하며, 여기서는 개략적인 흐름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계에서 아직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청학과 고증학적 전통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2.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의 이문(異文) 및 유형

『논어정의』는 청대 논어연구의 최고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sup>7)</sup>, 노론의 이문<sup>8)</sup>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경전석문』에서 인용한 정현 『논어주』의 노독(魯讀)<sup>9)</sup> 23조목의 두 배가 넘는 48조목<sup>10)</sup>에 달하는 노론의 이문을 논의하였기에, 노론 연구에 있어서도 당시까지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유보남이

7) 唐明貴(2009), 『論語學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 9.

8) ‘이문(異文)’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협의의 정의는 정본과 차이가 있는 이체자, 고금자, 통가자 등의 개별 글자의 차이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개념의 ‘이문’은 문자학에서 널리 쓰인다. 본고에서는 광의의 정의로서의 ‘이문’의 개념을 사용하여, 텍스트 교감의 측면에서 개별 글자의 차이 뿐 아니라 구절, 문장 단위의 차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9) ‘노독(魯讀)~’이라는 말을 ‘노론에서 ~라고 읽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다음어가 아닌, 텍스트가 지역에 따라 다른 글자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노론에서는 ~로 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노론에서는 ~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는 본고의 제2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어정의』의 노론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고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현의 주에 직접 등장하는 ‘노독’(魯讀)을 제외한 기타 기술에서는 노론의 ‘이문(異文)’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

10) 여기의 48조목은 『논어정의』에서 ‘노독’ 및 ‘노론’의 이문(글자의 차이, 자구의 유무, 구절 구성 한자의 차이, 문장 순서의 차이)에 대해 논의한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청대 다른 고증학 또는 교감학 서적에서 ‘노론’이라고 언급하였으나 『논어정의』에서는 ‘노론’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텍스트 차이만을 언급한 것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래 50개 조목이 보이지만 이 중 「자한」 10장 및 「향당」 19장의 ‘冕’, 「선진」 24장 및 「양화」 1장의 ‘歸’ 조목은 중복되므로 하나의 조목으로 보아 48조목이라고 한 것이다.

『논어정의』에서 언급한 48조목의 노론 이문에 대해 정리하고, 각 이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해보려 한다.

『논어정의』에서 언급한 노론 48조목에 대하여, 『논어정의』의 편장별 경문 및 이문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의 이문(고론, 제론과의 비교)

편장	『논어정의』 경문	노론	고론	제론
① 學而:2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仁’, ‘人’, 當出齊古魯異文.		
② 學而:4	傳不習乎	專	傳	-
③ 學而:15	未若貧而樂	樂	樂道	-
④ 爲政:5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毋	無	-
⑤ 爲政:8	先生饌	餒	饌	-
⑥ 爲政:18	子張學干祿	學	問	-
⑦ 八佾:8	繪事後素	續	繪	-
⑧ 八佾:21	哀公問社於宰我	主	社	-
⑨ 里仁:5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居	處	齊古魯文異
⑩ 公冶長:8	孟武伯問, 可使治其賦也	傅	賦	-
⑪ 公冶長:19	崔子弑其君	高	崔	-
⑫ 述而:7	自行束修以上, 吾未嘗無誨焉.	悔	誨	-
⑬ 述而:17	五十而學易	亦	易	-
⑭ 述而:34	正唯弟子不能學也	誠	正	-
⑮ 述而:35	誅曰, “禱爾于上下神祇.”	誅	禱	-
⑯ 述而:37	君子坦蕩蕩	湯	蕩	-
⑰ 子罕:10	冕衣裳者 鄉黨:19 見冕者與瞽者	統 (‘冕’의 異體)	弁	-
⑱ 鄉黨:1	孔子於鄉黨, 恂恂如也.	遜	恂	-
⑲ 鄉黨:1	朝與下大夫言, 侃侃如也, 與上大夫言, 誾誾如也.	선:下大夫, 辛:上大夫	선:上大夫, 辛:下大夫	-
⑳ 鄉黨:2	色勃如也	勃(齊魯)	黝(古論), 宇(古論異體)	-
㉑ 鄉黨:4	下如授	趙	下	-
㉒ 鄉黨:6	肉雖多, 不使勝食氣.	氣	既	-

편장	『논어정의』 경문	노론	고론	제론
㉓ 鄉黨:9	瓜祭	必	瓜	-
㉔ 鄉黨:11	鄉人讎	獻	讎	-
㉕ 鄉黨:15	君賜生	牲	生	-
㉖ 鄉黨:24	車中不內顧	內顧	不內顧	-
㉗ 先進:14	仍舊貫	仁	仍	-
㉘ 先進:24	詠而歸 陽貨:1 歸孔子豚	歸	饋	-
㉙ 顏淵:12	子曰片言可以折獄者, 其由也與?	制	折	-
㉚ 子路:18	吾黨有直躬者	弓	躬	-
㉛ 子路:28	子曰, “切切偲偲”	偲	節	-
㉜ 子路:28	怡怡如也, 可謂士矣.	怡	熙	-
㉝ 憲問:9	問子西曰, “彼哉! 彼哉!”	彼	彼	-
㉞ 憲問:15	齊桓公正而不譎	法	正	-
㉟ 衛靈公:2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	糗	糧	-
㊱ 衛靈公:10	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厲 (풍등부)	利 (혜동)	-
㊲ 衛靈公:17	好行小慧, 難矣哉!	惠	慧	-
㊳ 季氏:6	言未及之而言謂之躁	傲	躁	-
㊴ 陽貨:14	古之矜也廉, 今之矜也忿戾	貶	廉	-
㊵ 陽貨:16	子曰, “天何言哉?”	夫	天	-
㊶ 陽貨:21	惡果敢而窒者	窒	窒	-
㊷ 陽貨:21	惡微以爲知者	絞 (풍등부)	微	絞 (유보남)
㊸ 微子:5	已而已而, 今之從政者殆而	期斯已矣, 今之從政者殆	已而已而, 今之從政者殆而	-
㊹ 微子:6	曰, “滔滔者天下皆是也.”	滔滔	悠悠	-
㊺ 微子:8	身中清, 廢中權.	廢	-	發
㊻ 堯曰:2	子曰, “尊五美”	遜(魯論異文)	-	-
㊼ 堯曰:2	屏四惡, 斯可以從政矣.	逆(魯論異文)	-	-
㊽ 堯曰:3	孔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무	유	-

위의 표에 보이는 노론의 이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동음’(同音), ‘이음’(異音), ‘자구의 유무’, ‘구절 구성한자 차이’, ‘문장 순서 차이’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동음’은 이문 간에 독

음이 같은 것인데, 이를 다시 ‘동의’, ‘이의’, ‘동의 혹은 이의’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음’은 이문 간에 독음이 다른 것인데, 이를 ‘이의’, ‘전사 오류’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하에서는 『논어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48조목의 노론 이문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 동음(同音)

‘동음’은 노론과 고론 혹은 제론 간의 이문이 서로 음운상 같거나 유사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운상의 유사성에는 쌍성첩운(雙聲疊韻), 첩운(疊韻), 쌍성(雙聲)의 관계를 포함하며 음성, 양성과 입성이 서로 대전(對轉)하는 요소도 고려하였다. 본고는 노론과 고론, 제론 간의 이문이 동음이면서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동음동의’로 분류하고 동음이면서 각각의 한자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동음이의’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2.1.1. 동음동의(同音同義)

#### 2.1.1.1. 가차(假借)

‘동음동의’란 노론과 기타 텍스트 간의 이문이 서로 소리가 같고 뜻도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가차’와 ‘파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가차’(假借)는 문자학에서 말만 있고 글자가 없어서 자음이 유사한 글자를 차용하여 쓴 것을 말한다.<sup>11)</sup>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 글자가 있어도 차용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통가’(通假)라고 부르기도 한다. 광의의 ‘가차’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므로, 본고에서는 ‘가차’와 ‘통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차’ 유형으로 분류하

11)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가차는 본래 글자가 없어, 유사한 소리에 의거하여 일을 위탁하는 것이다”[假借者, 本無其字, 依聲托事.]라고 정의하였다.

였다. ‘동음가차’의 유형으로는 성모와 운모가 모두 같거나 유사한 경우, 운모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성모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12)</sup>

(1) 성모와 운모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노론과 기타 텍스트 간에 성모와 운모가 모두 같거나 유사하여, 두 글자가 서로 가차되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동음’에 해당하는 전체 38조목 중 10조목(② 專 : 傳, ④ 毋 : 無, ⑫ 悔 : 誨, ⑮ 誅 : 讎, ⑯ 湯 : 蕩, ⑳ 勃 : 艸, ㉟ 惠 : 慧, ㉫ 室 : 室, ㉭ 遵 : 尊, ㉯ 迸 : 屏<sup>13)</sup>)이 해당된다.

이 중 ⑫조 「술이」 7장 “自行束修以上, 吾未嘗無誨焉.”의 ‘誨’자에 대한 이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誨’자는 고론을 따른 글자이며, 노론에는 ‘悔’로 쓰여 있다. 노론에 쓰인 ‘悔’의 일반적인 뜻은 ‘후회하다’이고, 고론에 쓰인 ‘誨’의 일반적인 뜻은 ‘가르치다’이다. 따라서 이 두 글자를 각각의 의미로 풀이한다면, 해석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논어정의』에서는 정현이 “‘誨’는 노론에서 ‘悔’로 읽었다. 여기서는 고론을 따른다.”<sup>14)</sup>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노론의 ‘悔’에 대한 포신

12) 본고에서 기준으로 삼은 음운관계는 鄭張尙芳(2003:260-579)에 기록된 상고음 체계의 성부(聲符), 운부(韻部), 재구음이다. 여기의 ‘성부’란, 원래 형성자에서 한자의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때로는 의미도 함께 나타낸다. 상고 시기 같은 성부의 한자는 같은 성모(聲母)에 귀속됨으로 ‘성부’를 확인하여 상고음을 파악한 것이다. 또 ‘운부’란 주요 모음과 운미가 같은 압운자의 집합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상고음 음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13) 이곳의 원 안에 있는 숫자는 앞의 [표 1]에 나오는 원 안의 숫자와 같다. 이후의 기술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본고에서 쌍점(·)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글자만을 나열한 경우, 앞의 글자가 노론이고, 뒤의 글자는 고론 혹은 제론을 가리킨다. 이후의 기술도 모두 동일하다(단, 삼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①조는 제외). ㉭, ㉯조의 경우 『논어정의』에서 ‘노론이문’(魯論異文)이라고 하였을 뿐, 쌍점 뒤 한자의 텍스트 출처가 고론인지 제론인지 혹은 노론의 다른 텍스트에 보이는 것인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언(包慎言)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다.

포신언의 『온고록』(溫故錄)에서 말하기를 “생각건대, 노론에서는 ‘束脩’를 ‘막대 모양의 육포’로 보지 않았다. 『역』(易)에서 ‘悔吝’은 ‘작은 결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한 ‘두려워 하여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은 후회하고 고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였다. 성인이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성찰함을 더욱 엄격하게 하므로, 언제나 느끼고 잘못을 후회함이 있다. ‘自行束脩以上’은 스스로 신중하게 연마할 줄 알기에, 날마다 배워 차츰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이 말을 束脩하면 후회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걱정하여, ‘일찍이 후회가 없던 적이 없다’라고 깨우친 것이다.”<sup>15)</sup>

유보남은 포신언이 노론 ‘悔’에 대해 ‘후회하다’라고 풀이한 것에 반대하며, “포씨의 설은 단지 억측에 불과하다. 『주역』 「계사전」의 ‘慢藏誨盜’ [보관에 소홀하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에 대해, 『석문』에서는 우씨(虞氏)본을 인용하여, ‘悔’로 썼다. 두 글자는 동음 가차이다. 노론의 의미는 고론과 같기에, ‘悔’자로 ‘誨’를 가차한 것 같다. 정현은 고론의 뜻이 명확하다고 여겼기에, ‘誨’를 따라 정본을 정하였다.”<sup>16)</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보남은 포신언이 노론에 쓰인 ‘悔’를 ‘후회하다’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 억측에 불과하며, 노론 ‘悔’와 고론 ‘誨’ 모두 ‘가르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동음 가차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悔’와 ‘誨’는 모두 상고 시기 성부는 ‘母’이고, 운부는

14) “鄭注云, ‘誨, 魯讀爲悔字, 今從古.’”

15) “包氏慎言『溫故錄』, 案魯論, 則束脩不謂脯脰. 『易』曰, ‘悔吝者, 言乎其小疵也.’ 又曰, ‘震无咎者, 存乎悔.’ 聖人戒慎恐懼, 省察維嚴, 故時覺其有悔. 自行束脩以上, 謂自知謹飭砥礪, 而學日以漸進也. 恐人以束脩即可無誨, 故言未嘗無誨以曉之.”

16) “案魯論義不著, 包說但以意測. 『易』 「繫辭傳」, ‘慢藏誨盜’, 『釋文』引虞作‘悔’, 二字同音假借, 疑魯論義與古同, 段悔字爲之. 鄭以古論義明, 故定從誨也.”

‘之’이기에 이들이 음운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가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운모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노론과 기타 텍스트 간의 이문이 서로 뜻이 같으면서 성모는 다르고 운모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16조목(⑤ 餽 : 饌, ⑨ 居 : 處, ⑩ 傅 : 賦, ⑭ 誠 : 正, ⑱ 遜 : 恂, ⑳ 氣 : 旣, ㉔ 獻 : 儼, ㉘ 歸 : 饋, ㉙ 制 : 折, ㉚ 僂 : 節, ㉛ 怡 : 熙, ㉜ 粳 : 糧, ㉞ 厲 : 利, ㉟ 貶 : 廉, ㊱ 絞 : 徼, ㊲ 滔 : 悠)이 보이는데, 이는 동음 관계를 갖는 전체 38조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⑤조 「위령공」 2장 “在陳絕糧 從者病 莫能興.”의 ‘糧’자의 이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곳의 ‘糧’자는 고론을 따른 것이며 노론에는 ‘粳’으로 쓰여 있는데, 현재의 통행본은 고론을 따라 ‘糧’자를 쓰고 있다. 이 두 글자 모두 ‘양식’을 뜻하는 글자이므로 의미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糧’에 대해 유보남은 “정현의 주에서 ‘粳, 糧也.’라 하였는데, 이는 본래 『이아』(爾雅)「석언」(釋言)에서 나온 말이다. 진전의 『논어고훈』에서 ‘고론에서 “糧”이라 하고, 정현이 주를 단 노론에는 “粳”이라 썼다.’라고 하였는데, 의미도 그러할 것이다. 황간본에는 ‘糧’이라 썼는데, 속자(俗體)에 속한다.”<sup>17)</sup>라고 설명하였다. 노론 ‘粳’과 고론 ‘糧’은 모두 ‘陽’부이다. 『이아』「석언」에서 ‘粳, 糧也’라 풀이하고 있고, 『경전석문』「모시음의」(毛詩音義)에서도 ‘粳’을 ‘糧’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두 글자는 모두 ‘양식’(糧食)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유보남은 이 두 글자가 운모가 같고 의미 또한 같은 것이기에, 노론의 이문과 고론이 서로 통가되어 쓰인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17) 『鄭注云, ‘粳, 糧也.’ 本『爾雅』「釋言」。 陳氏鱣『古訓』謂‘古論作糧, 鄭所注魯論作粳’, 義或爾也。 皇本作‘糧’, 係俗體。”

또한 ㉔조 「향당」 11장 “鄉人儺”의 ‘儺’는 고론을 따른 것이며 노론에는 ‘獻’으로 쓰여 있는데, 『논어정의』에서는 고론을 따랐다. 『논어정의』에서는 “생각건대 ‘儺’와 ‘獻’는 독음이 유사하고 ‘獻’자는 가차로 쓰일 때도 있으니 오자로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sup>18)</sup>라고 설명하였다. 즉, 유보남은 두 글자의 자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형의 오류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이는 음운의 유사성에 의해 가차로 쓰인 것이며 자형의 오류가 아니라고 분석한 것이다. ‘儺’와 ‘獻’의 재구음은 상고시기에 모두 ‘歌’부에 속하기 때문에 첨운에 해당되기에, 이들 간의 관계를 가차로 분석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 (3) 성모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노론과 기타 텍스트의 이문끼리 서로 뜻이 같으며 운모는 다르되 성모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로는 ㉓조 弓:躬, 즉 「자로」 16장 “吾黨有直躬者”를 들 수 있다. 이곳의 ‘躬’은 고론을 따른 것이며, 노론에서는 ‘弓’으로 쓰여 있다. 『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에서는 ‘躬’을 설명하면서 “혹은 ‘弓’을 따르며 상형자이다. ‘躬’과 ‘弓’은 또한 쌍성자이다.”[或从弓, 象形, 躬弓亦雙聲.]라고 하였다. 따라서 ‘弓’과 ‘躬’은 쌍성관계<sup>19)</sup>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중고 성모가 모두 ‘見’모<sup>20)</sup>에 속한다.

이 구절에 대해 공안국은 “直躬이란 몸가짐을 바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sup>21)</sup>라고 설명하였다. 『논어정의』에서는 “攘은 도둑질하다는 뜻이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直人)이 있는데, 이름이 弓이다. 아버가 양

18) “案‘儺’‘獻’既由聲近, ‘獻’字或用段借, 未必爲誤字矣.”

19) ‘弓’은 ‘蒸’부이고, ‘躬’은 ‘終’부로 차이가 있지만, ‘蒸’부와 ‘終’부는 모두 양성운 이어서 서로 가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면, 이 두 글자는 성모와 운모 모두 음운적 유사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0) 상고 성부는 모두 [k]로 재구되며, 『광운』에서는 모두 ‘見’모에 속한다.

21) “孔曰, ‘直躬, 直身而行.’”

을 도둑질하여, 그 죄를 고하였다.”[攘, 盜也. 我鄉黨有直人名弓, 父盜羊則證其罪.]라는 정현주를 인용한 후, “이 주에 근거한다면 이는 정현본에서 ‘直弓’이라 쓴 것이다. 필시 고, 노, 제론의 이문에서 나온 것이다.”[據注, 是鄭本作直弓, 必出古魯齊異文.]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예속』(隸續)「진식잔비」(陳寔殘碑)에서 “식(寔)은 자(字)가 중궁(仲躬)이다.”라고 하였고, 여러 역사서나 잡서 및 『채중랑집』(蔡中郎集)에서 모두 ‘仲弓’이라 썼다. 이는 ‘躬’과 ‘弓’이 예전에 많이 통용되었기에. 정현은 ‘弓’을 인명으로 여긴 것이다. 『회남자』(淮南子)「범론훈」(汎論訓)의 구절에 대한 고유(高誘)의 주에서 또 말하기를 “直躬은 초나라 섭현(葉縣) 사람이다.”라 하였다.<sup>22)</sup>

이처럼 유보남은 ‘躬’과 ‘弓’이 통용된 용례를 제시하며 두 글자가 통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 그는 “躬은 무릇 그 사람의 이름이고, 필시 정직함으로 이름난 사람이기에, 고로 ‘直躬’으로 칭한 것이다. ‘直’은 행위로서 제시한 것이고, ‘躬’은 이름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 공안국의 주에서 ‘몸가짐을 바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直身而行]라고 풀었는데, 이는 잘못이다.<sup>23)</sup>”라고 주장하였다. 즉, 유보남은 경문으로 ‘躬’을 쓰면서도 그 의미는 정현이 ‘弓’을 인명으로 여긴 것에 동의하였고, 또 ‘直’은 이름의 일부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가된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결국 그는 노론의 ‘弓’과 고론의 ‘躬’ 모두 인명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실상 이들이 가차된 것이라 여겼다고 할 수 있다.

22) “『隸續』「陳寔殘碑」, ‘寔字仲躬.’ 史傳雜書, 『蔡中郎(蔡邕)集』 並作仲弓, 是‘躬’、‘弓’古多通用. 鄭以弓爲人名. 高誘『淮南』「汎論訓」注亦云, ‘直躬, 楚葉縣人也.’”

23) “躬蓋名其人, 必素以直稱者, 故稱直躬. 直舉其行, 躬舉其名. …… 僞孔以爲直身而行, 非也.”

## 2.1.1.2. 파독(破讀)

‘파독’(破讀)은 원래 글자의 의미나 기능에 변화가 생겼을 때, 본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새로운 의미나 기능에 따라 독음을 달리하여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차’가 자음이 유사한 글자를 차용하여 쓰는 것과는 다르다. 파독의 유형으로는 ⑦조 續 : 繪를 들 수 있다.

⑦조 「팔일」 8장 “繪事後素”의 ‘繪’자는 고론을 따른 것이며, ‘續’는 노론을 따른 경우이다. ‘續’는 ‘베를 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그림을 그리다’는 뜻의 ‘繪’와 의미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논어정의』에서는 먼저 “『설문』에서 ‘續은 베를 짜는 의미이다, 또한 그리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즉 ‘직물에 도안을 그리다’의 의미이다.”<sup>24)</sup>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 「고공기」(考工記)의 “염색하는 공인은 畫續、鍾、筐、洈씨가 있다.”[設色之工，畫續鍾筐洈.]와 “‘畫續’은 오색을 섞는 일이다.”[畫續之事雜五色.]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곳의 ‘續’는 ‘무늬를 그리다’는 뜻이다.”<sup>25)</sup>라고 설명하였다. 즉, 유보남은 이곳의 ‘繪’의 본의는 『설문』에서 ‘繪’를 ‘오색을 갖추다’[五采繡]라고 풀이한 것처럼 ‘여러 색의 수를 갖추는’ 것이고, ‘繪’의 파생의미는 ‘續’처럼 ‘그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繪’자를 파독하여 ‘續’의 의미를 따른 것[破讀從續]이 된다.

‘續’와 ‘繪’의 상고음은 각각 [\*glu:ds], [\*go:bs]로 재구되며, 『광운』(廣韻)에 따르면 ‘갑’(匣)모에 해당된다. 여기서 ‘繪’를 ‘續’로 읽는 것은 자음의 유사성으로 인한 가차가 아니라 ‘繪’가 ‘續’의 뜻으로 파생됨으로서 그 독음을 ‘續’로 바꾸어 읽은 파독이 된다. 『논어정의』는 이문 분석에 있어서, 『설문』에서 ‘繪’는 ‘오색을 갖추다’라는 본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용례를 통해 ‘그리다’의 의미로 파생되었으며, 그로 인해 본래 ‘그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續’의 독음으로 파독하여 구분한 것이라

24) “『說文』, ‘續, 織餘也。一曰, 畫也.’ 此即畫續之義”

25) “是續爲畫文.”

고 분석한 것이다. 파독의 결과로 ‘繪’를 ‘績’로 읽고, 의미 또한 ‘績’의 뜻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들 관계를 ‘동음동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2.1.2. 동음이의(同音異義)

‘동음이의’란, 노론과 기타 텍스트 간 이문의 음운은 같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를 가리킨다. 이 유형에는 모두 10조목(① 人 : 仁, ⑧ 主 : 社, ⑬ 亦 : 易, ⑰ 統 : 弁, ⑳ 趨 : 下, ㉑ 牲 : 生, ㉒ 仁 : 仍, ㉓ 彼 : 佞, ㉔ 傲 : 躁, ㉕ 廢 : 發)이 해당된다.

이 중 먼저 ㉒조 「향당」 4장의 “上如揖, 下如授.”를 살펴보자. 이곳의 ‘下’는 고론을 따른 것이고 노론은 ‘趨’라 쓴다. 유보남은 먼저 하안의 주에 나오는 “上如揖은 옥을 드릴 때 공경해야 하며 下如授는 감히 예를 잊지 않는 것이다.”<sup>26)</sup>라는 정현의 주를 인용하였는데, 이는 고론이 ‘下’자를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上’을 해석하면서 “‘授玉’은 빈객이 당(堂)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고 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옥을 주는 것을 ‘上’이라 한 것은, 『후한서』 「하간효왕개전」(河間孝王開傳)에서 ‘上案其罪’에 대해, “上”은 아뢰어 올리는 것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빙례기」의 ‘授如爭承’에서의 ‘授’은 곧 여기서 말하는 ‘上’이다. ‘爭承’는 ‘쟁걸음으로 나아가 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예는 반드시 빨라야 한다. 여기의 ‘如揖’과는 각기 별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sup>27)</sup>라고 설명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유보남은 “생각건대, ‘下’는 고음이 ‘戶’와 같은데 ‘趨’와 음이 가깝다. 이에 노론에서 ‘趨’로 쓴다. 정현은 ‘趨而授玉’했다는 것을 번잡하지 않게 ‘如’로 쓰고, 이에 고론을 따라 ‘下’로 썼다<sup>28)</sup>.”라고 하였

26) “上如揖, 授玉宜敬, 下如授, 不敢忘禮.”

27) “‘授玉’謂賓升堂東面授玉也. 授玉爲上者, 『後漢書』「河間孝王開傳」, ‘上案其罪.’ 注, ‘上, 奏上也.’ ……「聘禮記」‘授如爭承’, 彼文之‘授’, 卽此文所云‘上’也. ‘爭承’者, 言趨而授玉, 其禮宜速, 與此言‘如揖’各具一義.”

다. 이처럼 유보남은 노론 ‘趨’가 ‘下’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차하여 쓰였다고 분석한 것이다. 상고음 기준으로 ‘趨’는 ‘侯’부이고, ‘下’는 ‘魚’부이다. ‘侯’부와 ‘魚’부는 서로 합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본고는 비록 ‘趨’와 ‘下’가 서로 합운이 가능하였으나, ‘趨’는 ‘작은 보폭으로 걷다’, ‘下’는 ‘내려가다’의 의미를 각각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입장에서 본 조목을 ‘동음이의’로 분류하였다.

‘동음이의’로 분류된 ③조 헌문편 9장의 “問子西曰：‘彼哉！彼哉！’”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구절의 ‘彼’는 노론을 따른 것이며 고론에서는 ‘彼’로 쓴다. 역시 독음은 같지만, 의미는 각각 다른 이문이다. 유보남은 ‘彼’의 의미에 대하여, “‘彼’는 타인에 대한 칭호이다. 자서(子西)는 비록 공이 충분히 기록될 만했지만, …… 이에 주(注)에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염철론』(鹽鐵論)의 「잡론」(雜論)에서 “차승상(車丞相)은 주(周)·노(魯)출신인데,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안일만을 탐내며 떠나갔으니, 그대여! 그대여! [彼哉彼哉]라 하였는데, 역시 ‘彼哉’로서 언급할 것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sup>29)</sup>라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보남은 고론에 쓰인 ‘彼’를 설명하면서 송상봉(宋翔鳳)의 『과정록』(過庭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광운』「오치」(五寘)에서 ‘彼’는 슬프다는 뜻이다. 논어에서 ‘子西彼哉’라 한 것은, 자서가 자신이 정사를 다스림에 있어 많은 존경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나 관중이 제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원성이 없었던 것과는 같지 않았고 마지막에 얼굴이 가려진 채로 죽었으니, 진실로 슬퍼할 만하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광운』에 실린 내용은 고론의 흔적이다.”<sup>30)</sup> 즉 유보남은 ‘彼’

28) “案‘下’字古音如戶，與‘趨’音近，故魯論作‘趨’。鄭以趨而授玉不煩言‘如’，故從古作‘下’。”

29) “彼者，爾汝之稱。子西雖功足錄，……斯其智仁皆無可紀，故注以爲無足稱也。『鹽鐵論』「雜論」云，‘車丞相即周魯之列，當軸處中，括囊不言，容身而去，彼哉彼哉。’亦是以‘彼哉’爲無足稱也。”

30) “『廣韻』「五寘」，‘彼，哀也。論語云“子西彼哉”，言子西不若子產治政之有遺愛，

를 ‘그 사람’이라고 풀이하면서 『광운』에서 ‘슬프다’라는 뜻으로 풀이한 ‘彼’는 고론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彼’와 ‘彼’의 상고음은 모두 성부는 ‘皮’이고 운부는 ‘歌’이며, ‘彼’는 ‘그대’라는 뜻을 가지고 ‘彼’는 ‘邪’[사악하다]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 둘은 ‘동음이의’의 관계가 있다고 분류할 수 있다.

## 2.2. 이음(異音)

‘이음’은 노론과 고론 혹은 제론 간의 이문끼리 성부와 운부가 모두 상이한 것을 말한다. ‘이음’에 속하는 이문은 이음이의(異音異義) 3조목(⑥ 學：問, ⑪ 高：崔, ④⑩ 夫：天)과 전사(傳寫)의 오류 2조목(②③ 必：瓜, ③④ 法：正)이 해당되므로, ‘동음’ 관계의 이문에 비하면 그 수량이 적다.

### 2.2.1. 이음이의(異音異義)

여기서는 노론과 이문이 서로 다른 독음을 가지면서 또한 상이한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이 예에 속하는 이문은 총 3조목으로, ⑥조 “子張學干祿”(學：問), ⑪조 “崔子弑其君”(高：崔), ④⑩조 “子曰：‘天何言哉?’”(夫：天)<sup>31)</sup>의 이문이 그것이다.

이 중 ⑪조 「공야장」 편의 “崔子弑其君”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의 ‘崔’는 고론을 따른 것이며 노론에서는 ‘高’를 쓰고 있다.

『논어정의』는 먼저 고론의 이문인 ‘崔’를 살피고자 “‘崔子’에 대해 정현의 주에서 ‘노론에서는 ‘崔’를 ‘高’로 읽었는데, 여기서는 고론을 따른다.’라고 하였다”<sup>32)</sup>라는 『경전석문』의 설명을 인용하여, 고론을 따라

管仲治齊之無怨言，終於掩面而死，固可哀也.’ 廣韻所載，蓋古文論語之遺.”

31) 「양화」(陽貨) 16장의 “天何言哉?”구의 노론 ‘夫’와 고론 ‘天’의 이문은 자형의 유사로 인한 전사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崔’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남은 한편으로는 노론에 쓰인 ‘高’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다음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논형』 「별통편」(別通篇)에 “관리가 되고자 하면 고관이 될 수도 있다. 문무대신이 마치 우리 대부 고자(高子)와 같은데, 어찌 그들을 식별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는데, 이는 노론을 근거로 한 것이다. 포신언의 『온고록』에서는 “고씨(高氏)는 제나라의 경(卿)으로, 문자와 함께 벼슬한 사람인 고자이다. 최자가 군주를 시해하였는데, 노론에서는 ‘고자’라 쓴 것은 그가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음을 책망한 것이다. 조돈(趙盾)과 같은 의미가 있다. 문자가 제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때에 흑자가 병사를 동원해 간신을 정벌하려 하는데 국명을 집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모두 악인과 한 패를 이루니, 이에 ‘마치 우리 대부 고자 같구나.’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33)</sup>

이곳의 조돈은 진(晉)나라 때의 권력자로서 어린 영공(靈公, B.C.620~607 재위)을 옹립한 후 군주를 대신해 정권을 장악했으며, 영공의 타락과 무도를 막지 못했고 영공 시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자신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sup>34)</sup> 따라서 이 구절이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고자’를 비평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논어정의』에는, 이 구절에서 두 차례 출현하는 ‘崔’에 대하여 첫 번째는 고론을 따라 ‘崔’로 해야 하

32) “崔子, 鄭注云, 魯讀崔爲高, 今從古.”

33) “『論衡』 「別通篇」, 「仕宦爲吏, 亦得高官. 將相長吏, 猶我大夫高子也. 安能別之?」亦據魯論. 包氏慎言『溫故錄』, 「高氏爲齊命卿, 與文子同朝者, 高子也. 崔杼弑君, 而魯論書高子者, 責其不討賊也. 與趙盾同義. 文子去齊而之他邦, 其間或欲請師討賊, 而見其執國命者, 皆與惡人爲黨. 故曰, 猶吾大夫高子也.”

34) (明)馮夢龍, 김구용 역(2001), 『열국지사전』, 네이버 웹페이지에서 인용. 2018.3.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6846&cid=42990&categoryId=42990>.

고 두 번째는 노론을 따라 ‘高’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한 진립(陳立, 1809~1869)의 『구계잡저』(句溪雜箸)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생각건대, 포씨와 진씨의 두 설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노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정현은 고론으로 노론을 교수하였는데, 역시 장공시대 고자가 정권을 잡지 않았으므로 조돈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춘추』에서 책망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고론을 따라 죄자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sup>35)</sup> 여기에서 고론에 따른 ‘崔子’는 장공(莊公, B.C.553~548 재위)을 시해한 ‘崔杼’를 말하는 것이고, 노론의 ‘高子’는 ‘崔杼’를 말리지 않은 제나라 세족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노론 ‘高’와 고론 ‘崔’는 음과 뜻이 모두 다르다. 유보남은 포신언, 진립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노론에서 말하는 ‘高子’가 “猶吾大夫高子也” 구절에 쓰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동시에 정현이 문두의 “崔子弑其君”과 “猶吾大夫崔子也”에서 모두 ‘崔子’라고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두 가지 견해에 대해 모두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2.2. 전사(傳寫) 오류

『논어정의』에서는 전사 오류로 인한 이문은 총 2조목이 있으며, ㉓조 “瓜祭”(必：瓜)와 ㉔조 “齊桓公正而不譎”(法：正)의 이문이 해당된다. 「향당」 9장 “瓜祭”에 나타난 이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유보남은 “노론에서는 ‘瓜’를 ‘必’이라고 읽는다. 지금은 고론을 따른다.[魯讀瓜爲必，今從古.]”라는 정현 주를 인용하여, 이곳의 ‘瓜’는 고론을 따른 것이며 노론에는 ‘必’로 되어 있다는 차이를 설명한다. 또한 유보남은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것은 필사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 이돈(李惇, 1734-1784)의 『군경식소』(羣經識小)을 인용하여, “必자

35) “案包陳二說微異，皆可得魯論之義。鄭以古論定魯論，亦以莊公時高子不當權，要與趙盾異，『春秋』無所致譏，故宜從古論作崔子也。”

는 ‘八’과 ‘戈’를 따른다. 전서체로는 ‘𠄎’라고 쓴다. ‘瓜’와 서로 비슷하여 잘못되었다.”<sup>36)</sup>라 하면서 이돈의 견해가 노론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론을 따라 ‘必’로 쓴다면 이는 ‘반드시’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논어정의』에서는 장용의 『배경일기』(拜經日記)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공양전』「양공 29년」에 ‘飲食必祝.’[먹고 마시는 것에는 반드시 신에게 기원을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주에 ‘기원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려 기원한다는 것이다. 『논어』에서 “雖疏食菜羹瓜祭.[비록 거친 음식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제사를 올린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주를 쓴 하유(何休)는 금문학에만 능통하였으므로, 고론(‘瓜’)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에 논어를 인용한 것은 아마도 노론의 문장으로 『공양전』의 ‘必祝’의 증거를 삼은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잘못하여<sup>37)</sup> 지금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바꾼 것이다.”<sup>38)</sup>, 유보남은 장용의 견해가 옳다고 동의하면서, ‘瓜’가 노론을 따라 ‘必’로 쓰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논어정의』에서는 ‘瓜’라고 쓰는 고론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예기』「옥조」(玉藻)의 관련 설명과 전점(錢坫, 1741-1806)의 『논어후록』(論語後錄)을 인용한 후, “생각건대, 고론을 따른다면 ‘祭’자에서 구두를 해야 한다. 과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과실이고, 하나는 열매이다. 여기서의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곡례」(曲禮)에서 말하는 ‘깎은 과일(削瓜)’이다. 황간본에는 ‘𠄎’라 썼

36) “必字从八戈，篆文作𠄎，與瓜相近而誤。”

37) 이는, 공양학자인 하휴가 금문에 근거할 것이므로 고론이 아닌 노론에 근거하여 논어를 인용하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즉 원래 하휴가 논어를 인용할 때 노론에 근거했다면 논어 원문이 ‘必’로 된 것을 인용한 것인데, 후인들이 현재의 논어 원문인 ‘瓜’에 근거하여 하휴의 문장을 바꾸어 썼다는 말이다.

38) “公羊襄二十九年傳，‘飲食必祝.’注，‘祝，因祭祀也。『論語』曰，雖疏食菜羹瓜祭，是也.’何劭公止通今學，不當引古論。此蓋用魯論之文。以證傳中必祝，後人誤據今本改之。”

는데, 이는 자형이 비슷해서 생긴 오류이다.<sup>39)</sup>”라고 설명한다. 즉, 유보남은 『예기』 「옥조」 편에서의 ‘瓜祭’가 과실의 윗부분을 깎아 올리는 제사로 풀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정현이 ‘瓜祭’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통할 수 있음을 부연한 것이다.

이상을 통해 유보남은 고론의 ‘瓜祭’설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돈과 장용설을 따라, “雖疏食菜羹瓜祭” 구절의 ‘瓜’는 ‘必’과 자형이 유사함으로 인해 생긴 전사과정의 오류이며, ‘必’로 쓰고 ‘반드시’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공양전』의 “飲食必祝.”에 대하여 금문학자인 하휴(何休)의 주에서 논어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必祝’에 대한 해설의 근거로 쓴 것을 통해 노론의 ‘必’이 정본이었다고 교감한 장용의 주장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유보남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 2.3. 자구의 유무

노론과 기타 텍스트에서 자구의 유무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총 3조목이 있다. ③조 未若貧而樂 : 未若貧而樂道, ⑥조 車中內顧 : 車中不內顧, ④⑧조 X : 孔子曰 : “不知命, 無以爲君子也.”이 그것이며, 이 중 「학이」 편의 15장 노론 “未若貧而樂”과 고론 “未若貧而樂道”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유보남은 “황간본, 고려본, 족리본에는 모두 ‘樂道’로 되어 있다.”[皇本、高麗本、足利本、並作樂道.]라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어정의』는 진전의 『논어고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39) “案從古論則‘祭’字當爲一句. 瓜有二種, 一果實, 一殼實. 此是果食即禮所云, ‘削瓜也’. 皇本作‘菹’, 此形近之誤.”

정현의 주가 있는 텍스트에는 ‘道’자가 없다. 『집해』는 고론을 두루 수록한 것인데, 아래에서 공안국을 인용하여, “能貧而樂道.”라고 썼으니, 이는 공안국이 주를 단 고론에는 본래 ‘道’자가 있었던 것이다. 『사기』에 실린 구절도 고론인데, 「중니제자열전」에서 “不如貧而樂道.”라고 인용하였으니 이는 공안국과 일치된다. 『문선』 「유분시」(幽憤詩)의 “樂道閒居.”라는 구절의 주에서 『논어』를 인용하면서 “子曰, 貧而樂道.”라고 하였는데, 이는 『집해』에 ‘道’자가 있었지만 지금의 여러 텍스트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현이 근거한 텍스트는 대체로 노론이기에 ‘道’자가 없다.<sup>40)</sup>

이는 공안국 주가 고론을 따라 ‘道’를 썼고 정현 주가 노론을 따라 ‘道’가 없으며, 또한 고론에 근거했던 『사기』와 『문선』의 주를 통해 고론과 노론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유보남은 이처럼 ‘樂道’라고 ‘道’가 더 쓰인 것은 고론을 따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sup>41)</sup>

한편 유보남은 정현이 비록 ‘道’를 쓰지 않고 ‘樂’이라고만 했지만 이 또한 ‘樂道’를 의미하며 이는 고론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sup>42)</sup> 또 이는 논어의 하편에 나오는 “回也不改其樂”, “樂亦在其中矣”라는 구절에서 비록 ‘樂道’라고 쓰지 않았지만 뜻은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정현이 노론을 교수하면서 고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43)</sup>

이상에서 노론의 이문이 자구의 유무와 관련된 것을 보았다. 위 설명을 통해 유보남이 노론과 고론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자신이 정본으로 어

40) “鄭注本無‘道’字, 集解兼采古論. 下引孔曰, ‘能貧而樂道.’ 是孔注古論本有‘道’字. 『史記』所載語亦是古論, 「仲尼弟子傳」引‘不如貧而樂道’, 正與孔合. 『文選』 「幽憤詩」, ‘樂道閒居.’ 注引『論語』, ‘子曰, 貧而樂道.’ 是集解本有‘道’字, 今各本脫去. 鄭據本蓋魯論, 故無‘道’字.”

41) “今案, 作‘樂道’, 自是古論.”

42) “鄭以樂即樂道, 與古論同.”

43) “下篇‘回也不改其樂’, ‘樂亦在其中矣’, 皆不言樂道, 而義自可通, 故鄭不從古以校魯也.”

편 구절을 선택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과 아울러 본인이 취하지 않은 판본의 구절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2.4. 구절 구성 한자 차이

앞서 한 글자의 유무에 의한 노론 이문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노론과 기타 텍스트가 구절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한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예로는 ④3조 「미자」 5장을 들 수 있다.

『논어정의』에 인용된 정현 주에 의하면, “노론에서는 ‘期斯已矣, 今之從政者殆.’라고 쓰는데 지금은 고론을 따른다.”<sup>44)</sup>라고 하여, 이 구절에 대한 『논어정의』 경문인 “已而已而, 今之從政者殆而”는 고론을 따른 것이며, 노론은 “期斯已矣, 今之從政者殆”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론의 “期斯已矣” 구절에 대해 진전의 『논어고훈』을 인용하며, “期는 時의 뜻이다. 떠나고 머무르는 도리는 오직 그 때가 있을 분임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위태롭다는 것은 그만 둘 때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노론의 뜻이라고 설명하였다.<sup>45)</sup> 또한 유보남은 “정현이 고론을 반드시 따르려 한 것은, 「공자세가」에서 ‘已而已而’라 하였고, 또 『장자』에서도 ‘已乎已乎’한 것을 근거로, 고론이 더 타당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sup>46)</sup>라고 언급하여, 『사기』 「공자세가」나 『장자』 「인간세」(人間世)의 구절을 근거로 고론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

44) “魯讀‘期斯已矣, 今之從政者殆.’ 今從古.”

45) “陳氏鱣『古訓』曰, ‘期, 時也. 言出處之道, 惟其時而已矣. 今之從政者殆, 是可已之時也.’ 此或得魯義.”

46) “鄭所以必從古者, 正據「世家」作‘已而已而’, 又『莊子』亦云‘已乎已乎’, 知古本爲近也.”

## 2.5. 문장 순서의 차이

『논어정의』에서 노론과 고론이 구절 순서의 차이를 언급한 것은 한 개 조목으로 ①9조 「향당」 1장의 “朝與下大夫言，侃侃如也，與上大夫言，誾誾如也.”가 여기에 속한다. 유보남은 이에 대해 “「공자세가」에서 이 문장은 먼저 상대부가 놓이고, 후에 하대부가 나온다. 『예기』 「빙례기」의 주에서 인용한 것 역시 동일하다. 풍등부의 『논어이문고증』에서는 이것을 고론으로 보았다.<sup>47)</sup>”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자세가」은 상대부를 먼저 언급하였는데, 이는 고론을 주로 텍스트로 삼은 『사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한 유보남은 노론과 고론의 문장 순서 차이에 대해 “호훈(胡薰)의 『향당의고』(鄉黨義考)에서는 노론에 의거하여, ‘높은 사람에게 아직 이르지 못했기에 신분이 낮은 자들이 먼저 나오므로 이에 먼저 하대부와 서로 만나고 들어가서 상대부와 서로 만났다.’라고 풀이하였는데, 그렇다면 노론은 말을 나눈 선후에 근거한 것이고 고론은 관직의 높낮음에 근거하여 이를 기록한 것이다<sup>48)</sup>.”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현재 통행본에 “朝與下大夫言，侃侃如也，與上大夫言，誾誾如也.”라고 쓰인 것은 노론을 따른 것이며 고론에는 “朝與與上大夫言，誾誾如也，下大夫言，侃侃如也.”라고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는 노론이 대화의 선후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문장을 배열한 반면 고론은 신분의 높낮음에 더욱 치중하여 문장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어정의』에 언급한 노론의 이문 48조목에 대해 형, 음, 의 등의 관계를 분석하여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7) “「世家」此文先‘上大夫’，後‘下大夫’，「聘禮」注引同。馮氏登府『異文考證』以爲此古論。”

48) “胡氏薰『鄉黨義考』據魯論，謂‘貴者未至，而賤者先盈，故先與下大夫相見，進而與上大夫相見。’則是魯論據與言爲先後，古論則據爵之秩次書之。”

[표 2] 노론 이문의 세부 유형(고론, 제론과의 비교)

단일 한자 차이(43)				기타 차이(5)							
2.1 동음同音				2.2 이음異音	2.3 자구의 유무	2.4 구절 구성 한자 차이	2.5 문장 순서 차이				
성모와 운모가 모두 같거나 유사	운모가 같거나 유사	성모가 같거나 유사									
동의 同義	가차 假借	② 專 : 傳 ④ 毋 : 無 ⑫ 悔 : 誨 ⑮ 誅 : 誹 ⑯ 湯 : 蕩 ⑳ 勃 : 輓 ㉑ 惠 : 慧 ㉒ 室 : 窒 ㉓ 遵 : 尊 ㉔ 进 : 屏	⑤ 餽 : 饋 ⑨ 居 : 處 ⑩ 傅 : 賦 ⑭ 誠 : 正 ⑰ 遜 : 恂 ㉑ 氣 : 既 ㉒ 獻 : 饋 ㉓ 制 : 折 ㉔ 偲 : 節 ㉕ 怡 : 熙 ㉖ 稂 : 糧 ㉗ 厲 : 利 ㉘ 貶 : 廉 ㉙ 絞 : 微 ㉚ 滔 : 悠	③ 弓 : 躬	이의 異義	⑥ 學 : 問 ⑪ 高 : 崔 ⑭ 夫 : 天  ③ 樂 : 樂道 ⑤ 期斯已矣, 今之從政者 殆 : ⑧ x : 孔子曰, “不知命, 無以為君子也”	④ 期斯已矣, 今之從政者 殆 : 已而已而, 今之從政者 殆而	⑩ 朝與下大夫 言, 侃侃如也, 與上大夫言, 誾誾如也, 朝與與上 大夫言, 誾誾如也, 下大夫言, 侃侃如也.			
		소계	10	16					1	소계	3
		27									
		파독 破讀			⑦ 績 : 繪	전사 傳寫 오류	⑫ 必 : 瓜 ⑬ 法 : 正				
	소계	1		1							
이의 異義	① 人 : 仁 ⑬ 亦 : 易 ⑮ 紉 : 弁 ⑰ 牲 : 生 ⑲ 廢 : 發	⑳ 趨 : 下 ㉑ 彼 : 彼 ㉒ 傲 : 躁 ㉓ 主 : 社	㉔ 仁 : 仍								
								소계	5	4	1
10						1	1				
총계	38			5	3	1	1				
	48										

### 3. 『논어정의』 노론 연구의 학술사적 가치

이상에서 노론의 이문을 기타 텍스트와 비교를 통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이제 이를 토대로 『논어정의』의 노론 연구가 어떠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대는 엄격한 문헌적 고증이 요구되던 시기이다. 학자들은 접근 가능한 가장 오래된 자료를 찾아, 원형적인 텍스트의 재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륭·가경 시기는 『사고전서』(四庫全書)의 편찬 작업이 마무리되어, 당시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가장 방대한 목록작업이 완성되었고, 주요 서적의 보존 및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이러한 학술상의 축적은 『논어정의』에서 교감, 음운, 훈고 등의 분석에 있어, 역대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세밀한 분석과 실증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본 장에서는 2장의 분석을 토대로, 『논어정의』 노론 연구의 학술사적 가치에 대해, 문헌학, 음운학, 해석학적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논어정의』는 새로운 노론의 이문을 수집하고 일실된 정현주의 일부를 복원함으로써, 노론 및 기타 텍스트 간의 이문을 새롭게 정리하고 분석하여 노론의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문헌학적 성과를 거두었다.

『논어정의』의 노론 분석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석문』에서 인용된 정현주의 두 배가 넘는 총 48조목의 노론의 이문을 찾아내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논어정의』가 서한 초기 가장 먼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끼치며 전파되었던 ‘노론’에 특히 주목하여, 다른 텍스트와의 문자, 음운, 해석 등 방면의 관계를 분석하여, 나름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유보남은 한대부터 청대까지의 『논어』의 주소(注疏), 문자, 훈고, 음운, 교감, 제자백가, 역사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참고하여, 노론의 이문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글자에 대해서는 때론 유보남이 직접 문헌적 증거를 기반으로 노론의 이문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2장에서 언급한 「학이」편의 노론 ‘樂’

과 고론 ‘樂道’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 황간본, 고려본, 족리본 등 기타 텍스트와의 차이를 논하고, 『예기』의 「방기」, 『사기』의 「중니제자열전」, 문학집 『문선』 「유분시」의 주, 청대 진진의 『논어고훈』 등 시대와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문헌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분석하였다. 특히, 『논어고훈』에서 “정현본이 노론을 따랐다.”라고 분석한 것을 따라 ‘道’가 없는 이문을 노론으로 분류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정현의 『논어주』를 고론 계열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의 스승이 마융(馬融)이었고, 『경전석문』에서 정현주의 “고론을 따른다”[今從古]라는 분석만 선택적으로 인용한 이후, 정현이 고론으로만 노론을 교수하였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정현이 고론을 위주로 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논어정의』를 통해 정현이 이문 현상을 처리하는데 있어 노론을 취하는 예가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노론 연구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논어정의』에서는 역대 문헌을 근거로 정현의 『논어주』 일부를 복원하였는데, 정현주가 노론을 따르고 있는 예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정현 『논어주』에서 노론을 따른 예

편장	경문	노론	고론	정현주	근거문헌
③ 學而:15	未若貧而樂	樂	樂道	樂	『論語古訓』
⑤ 爲政:8	先生饌	餒	饌	餒	『經典釋文』
⑦ 八佾:8	繪事後素	績	繪	績	『讀書叢錄』
⑩ 鄉黨:2	色勃如也	勃(齊魯)	艸, 字	勃	『北堂書』
⑬ 子路:18	吾黨有直躬者	弓	躬	弓	유보남의 판단
⑮ 衛靈公:2	在陳絕糧	糧	糧	糧	『經典釋文』
⑳ 陽貨:22	惡微以爲知者	絞	微	絞	『經典釋文』

그러나 위에서 보았던 [표 3]에서 노론과 고문의 이문이 대치할 때, 정현이 반드시 고론만을 따른 것이 아니며, 노론을 따른 것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⑦, ⑳, ㉓, ㉔조는 정현주가 노론을 따랐다는 언급을 한 근거 문헌을 인용하였다. ㉔조의 경우에는 유보남이 직접 정현주를 인용하며 노론 이문이라 판단한 것인데, 『예속』(隸續)에서는 ‘仲躬’으로 쓰고 『채중량집』(蔡中郎集)에서는 ‘仲弓’이라 쓰고 있어서 고대에 이 두 글자가 자주 통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논어정의』는 문헌 기록에 입각하여 산실된 『논어주』의 일부를 찾아 복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현이 노론도 다수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현이 고론을 위주로 하였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고론만을 따르는 입장이 아니며, 노론, 제론 그리고 고론 중에서 제일 합당하다고 여긴 것을 택하는 절충적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어정의』의 노론 연구는 금고문 논쟁을 떠나 논어와 관련 모든 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문헌을 정리하고 분석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문헌의 역사 및 계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에 틀림없다.

둘째, 『논어정의』를 통해 확인한 노론은 고대 음운학 분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상고음은 문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에 노론과 기타 텍스트 간의 이문에 존재하는 가차, 파독 등의 자료는 상고음 재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전체 노론 이문 48조목 중에서 개별 한자 차이를 나타내는 이문은 총 43조목이며, 이문 중에서 88%를 차지하는 38조목이 자음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 중 27조목은 가차 관계에 있고 1조목은 파독관계이다. 이러한 이문 간의 음운의 유사성은 상고음 재구 및 경문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었다. 『논어정의』는 이 점에 주목하여, 『석문』에 인용된 정현주의 ‘노독(魯讀A爲B 혹은 A魯讀爲B)’을 시작으로, 청대 학자들의 노론 이문 분석에

있어서의 음운학적 성과를 수용하였다.

가령, ㉔조 「향당」 6장 “不使勝食氣”에 대한 기술을 보도록 하자. 유보남은, “『설문』에서 ‘旣는 小食(간단한 음식)이다. 『논어』에서 不使勝食旣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 ‘노론에서는 氣라 쓰고, 고론에서는 旣라 썼는데 이는 가차를 사용한 것이다. 혹여 허신이 ‘간단한 음식(小食)’이라고 한 풀이를 가져다 논어를 해석한다면 잘못이다. …… 정현이 「중용」의 주에서 ‘旣는 饌로 읽는다.’라고 하였고 「빙례」의 주에서 ‘고문에서 旣는 饌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旣’와 ‘氣’는 통용된다.”<sup>49)</sup>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단옥재가 노론 ‘氣’를 쓰고 고론은 가차된 ‘旣’를 쓴다고 한 것을 유보남이 수용한 것이다. 노론에 쓰인 ‘氣’와 고론에 쓰인 ‘旣’는 상고음에서 모두 ‘隊’부였기에, 첩운 가차될 수 있다.

다음으로 ㉕조 「양화」 21장 “惡微以爲知者” 구절에 대한 『논어정의』의 기술을 살펴보자. 유보남은 완원(阮元)의 『논어주소교감기』(論語注疏校勘記)에서 “敷의 성모와 交의 성모는 고음에서 같은 운부이므로 통가할 수 있다.”<sup>50)</sup>라는 견해를 인용하고, 여기에 “생각건대, 『좌전』 성공 14년에서 『시경』을 인용하며 ‘彼交匪微.’라 하였는데, 『한서』 「오행지」에서는 『좌전』을 인용하면서, ‘彼交’를 ‘匪微’라 썼다. 이 또한 ‘交’와 ‘敷’의 소리부가 서로 통가된다는 증거이다.”<sup>51)</sup>라며 자신의 견해를 문헌적 검증을 통해 밝혔다. 이처럼 유보남은 청대 음운학 성과를 노론 연구에 반영하여 텍스트 차이를 음운학적으로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며, 선진 시기 문헌에서 관련된 실례를 찾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삼았다.

49) “說文, ‘旣, 小食也. 論語云, 不使勝食旣.’ 段氏玉裁說魯論作‘氣’, 古論作‘旣’, 用假借. 惑援許氏‘小食’之訓解論語, 非也. …… 鄭注中庸云, ‘旣讀爲饌.’ 注聘禮云, ‘古文旣爲饌.’ 是‘旣’‘氣’通用.”

50) “敷聲交聲, 古音同部, 故得通借.”

51) “左成十四年傳引詩, ‘彼交匪微.’ 漢書五行志引左傳‘彼交’作‘匪微’, 亦交敷二聲旁通之證.”

이는 유보남이 상고음에 대한 고증 및 경문의 이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운학 이론과 성과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대 고증학의 주된 연구방법의 하나인 소리를 근거로 뜻을 구한다는 ‘인성구의’(因聲求義)의 방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차이가 내포하는 음운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셋째, 양주학파의 학풍을 계승한 중도 성향의 노론 연구는 『논어』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논어정의』의 범례(範例)에는 “경문을 풀이함에 있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옳음을 추구하고 일가(一家)만을 따르지는 않았다. …… 만약 해설한 뜻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의미상 부합하면 모두 그것들을 수록하여 지금까지의 주소가(注疏家)들이 묵수(墨守)하던 잘못을 바로잡았다<sup>52)</sup>.”라고 밝혔다. 이처럼 유보남은 노론과 고론 등의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렴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가령 「학이」 4장에서 고론 ‘傳’과 노론 ‘專’ 중 어느 쪽이든 의미는 통한다고 분석한 것이 그 예이다. 유보남은 이 구절에서 노론 이문인 ‘專’에 대해 분석한 제가의 견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뜻은 고론의 ‘傳’으로 ‘스승이 전한 것’을 가리키나, 자형은 ‘專’으로 쓰고 ‘傳’의 가차로 본 견해이다. 정현과 장용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둘째, 노론의 ‘專’을 가차자가 아닌 본자로 보아, 공자가 각각의 제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 분야를 맡겼으며, ‘專’은 바로 이러한 ‘전문 분야’를 뜻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는 송상봉의 『논어발미』(論語發微)와 포신언의 『논어온고록』(論語溫故錄)을 소개하고 있다. 유보남은 고론에 가까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노론에 대해 의미상 파악이 어려움을 비판하여 최종적으로는 고론을 취하면서도, 노론을 기반으로 하

52) “至引申經文，實事求是，不專一家。……若說義二三，於義得合，悉爲錄之，以正向來注疏家墨守之失。”

는 송상봉과 포신언의 해석도 겸함으로써 하나의 정설을 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유보남이 고론과 노론의 이문에 대한 교감 작업을 거친 후 정보를 정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때로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청사고』(淸史稿)에서 유보남이 『논어정의』를 저술한 계기, 체계의 특징, 저술 과정 등을 언급한 다음의 구절에서 이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유보남은 경(經)에 있어서, 초기에는 모시와 정현본 예기를 통달하였고, 유문기, 강두 배직지, 경현 포신언, 단도 유흥은, 구용 진립과 각각 한 권의 경서를 통달하기로 약속하였다. 유보남은 『논어』를 뽑아, 황간, 형병 소(疏)의 거칠고 부족한 부분을 아쉬워했기에, 한유(漢儒)의 옛 설들을 수집하였으며, 송(宋)대의 유용한 의미와 근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더하였다. 초순의 『맹자정의』의 체계를 모방하여, 먼저 시대에 따라 자료를 모아,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것저것을 취사하여 알맞은 것을 택하여 저술을 하였다. 『논어정의』 24권은 공사가 다망하여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아들인 공면에게 명하여 저술을 지속하여 완성토록 하였다.<sup>53)</sup>

유보남이 속한 양주학파(揚州學派)는 한대 경학의 고수를 반대하고 다방면에 정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양주학파의 일원이며 유보남이 『논어정의』를 저술하는데 있어 전범(典範)이 되었던 『맹자정의』(孟子正義)를 쓴 초순(焦循)은 한대 주석만을 묵수하는 당시 풍토를 빗대어 “근래의 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 고거(考據)라는 이름으로 무리지

53) “寶楠於經，初治毛氏詩鄭氏禮後，與劉文淇及江都梅植之涇縣包慎言丹徒柳興恩句容陳立，約各治一經。寶楠發策得論語，病皇邢疏蕪陋，乃蒐輯漢儒舊說，益以宋人長義及近世諸家。仿焦循『孟子正義』例，先爲長編，次乃薈萃而折衷之著。『論語正義』二十四卷，因官事繁，未卒業。命子恭冕，續成之。”

어 일어나는데, 그 근거하는 바를 쫓아보면 한유(漢儒)이며, 한유 중에서도 오직 정현과 허신뿐이다. 하나에 집착하여 도(道)를 해치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sup>54)</sup>.”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지금의 고증학자들은 오직 한유만을 스승으로 삼고, 송원학자들이 경을 해설한 것은 마치 분토(糞土)처럼 버리니 이 역시 잘못이다<sup>55)</sup>.”라고 하여, 당시 한학만을 주장하고 송학을 철저히 배척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다.

양주학파는, 음운학과 소학 연구를 중시하는 환파(皖派)와 송대 의리를 거부하고 한대 경전해설과 주석에 바탕한 훈고를 중시하는 오파(吳派)의 특징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양주학파의 학풍을 이어받은 『논어정의』는, 한(漢)대의 주소(註疏)와 송(宋)대의 의리(義理), 청(淸)대 고증(考證)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합하고 음운학과 소학 연구를 기초로 하여 목록, 집일, 교감 등의 작업을 거쳐 텍스트의 시비를 가리고, 실증적 방법인 고증을 통하여 경전의 뜻을 상세히 밝히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미가 모두 통하는 이문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설을 따르기 보다는 모두를 수용하는 개방적, 통합적으로 열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논문의 이문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논문과 기타 텍스트의 의미가 둘 다 통하는 이문에 대해서는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중도적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사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이라 여긴 것이라 판단된다.

‘경전을 읽는다’라는 것은 ‘해석’이라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논어』의 한 구절을 읽게 한 뒤 그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각 사람의 대답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경문의 해석은 때로 대단히 자율적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논어정의』를 살펴보면, 논문과 고론 등 이문 연구

54) 『里堂家訓』“近之學者，無端而立，一考據之名羣起，而趨之所據者漢儒，而漢儒中所據者，又唯鄭康成許叔重。執一害道莫此爲甚。”

55) 『里堂家訓』“近世考據之家，唯漢儒是師，宋元說經棄之如糞土，亦非也。”

를 위해 인용된 문헌의 수에 압도당한다. 한 구절의 경문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헌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문헌을 인용한다는 것은 해석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어』에 노론 등의 이문이 남아있고 이들의 시비에 있어 열린 결론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도 『논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론은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유보남의 아들 유공면이 쓴 『논어정의』의 후서(後叙)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한대 학자 중에 오직 정현만이 예를 언급함에 있어 가장 우수하였다. 또 노론에 대해서는 제론과 고론을 함께 살펴보고 주를 달아 선택한 바가 합당한 것임을 알았다. 위나라 하안의 『집해』는 정현의 주에 대해 많은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위조된 공안국과 왕숙의 해설은 오히려 책에 남겨두었으니, 이는 잘못이다. 양(梁)나라 황간(皇侃)은 『집해』에 근거하여 소를 달아 위, 진 시대 여러 유학자들의 뜻풀이를 실었으니, 청허하고 오묘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고, 궁실과 의복에 관한 많은 예들이 빠뜨리고 언급하지 않았다. 송의 형병 또한 황간에 근거하고 별도의 소를 지었지만, 문장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뜻을 펼쳤지만, 족히 취할만한 것이 없었다. 청나라는 실학을 숭상하고 경술을 널리 밝히기에, 제가의 논어 해설로 불만한 좋은 것이 있지만 의미를 풀어주는 저작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sup>56)</sup>

56) “漢人著者, 惟康成最善言禮, 又其就魯論, 兼考齊古而爲之注, 知其所擇善矣. 魏人『集解』, 於鄭注多所刪佚. 而僞孔王肅之說, 反籍以存, 此其失也. 梁皇侃依集解爲疏, 所載魏晉諸儒講義, 多涉清玄, 於宮室衣服諸禮闕而不言. 宋邢昺又本皇氏, 別爲之疏, 依文衍義, 益無足取. 我朝崇尚實學, 經術昌明, 諸家說論語者彬彬可觀, 而於義疏之作, 尚未遑也.”

후서의 기술에 의하면, 오직 정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당시까지의 다른 『논어』 편집본과 주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기존 연구의 성과를 흡수하고 동시대 고증학 학술 연구 성과를 접목시켜 텍스트 차이와 해석에 있어 통합적 연구를 실현한 『논어정의』는, 금고문 논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노론, 고론, 제론 등을 대교하여 정본을 확정하려 했던 정현의 검학에 대하여 존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후서를 통해 우리는 『논어정의』가 학문적 융합의 기치 아래 고론만을 중시하는 학풍을 비판하고, 노론 등의 기타 텍스트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고증의 대상으로 삼아 경전을 재구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논어정의』는 노론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학문적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노론 연구가 단순히 교감의 대상이 아닌 문헌학, 음운학, 해석학 등 여러 학문적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4. 맺음말

본고는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과 기타 텍스트 간의 이문 48개 조목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이 논어를 해석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의 학술적 가치를 논하였다.

노론은 서한 시기 가장 널리 유통되었던 텍스트로, 노론 20편의 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한학과, 금문학과, 절충학과에 의해 발전되고 그 가치를 부여받았다. 명대까지 크게 유행하였던 성리학에 대한 반동으로 청대 고증학은 학문의 융합을 통해, 경전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청대에 노론 이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 『논어정의』는 선행 연구 성과를 흡수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노론과 기타 텍스트 간의 차이를 탐색하는 노력을 기울여, 총 48조목에 달하는 노론 이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경전의 실체를 탐구하고자 했던 희망은 학문적 융합을 통한 경전 분석을 가져왔고, 경전의 의미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청대의 실사구시(實事求是) 기조 아래 노론의 연구 가치는 재평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漢) 司馬遷, 『史記』, 清乾隆武英殿刻本, 基本古籍庫.  
(漢) 郭憲, 『漢武洞冥記』, 明顧氏文房小說本, 基本古籍庫.  
(漢) 班固, 『漢書』, 清乾隆武英殿刻本, 基本古籍庫.  
(魏) 何晏注, (宋) 邢昺疏, 『論語註疏』, 清阮刻十三經注疏本, 基本古籍庫.  
(唐) 陸德明, 『經典釋文』, 清抱經堂叢書本, 基本古籍庫.  
(清) 段玉裁, 『說文解字主』, 1988년 上海, 商務古籍出版社 影印本.  
(清) 劉寶楠, 『論語正義』上下, 1990, 北京, 中華書局 排印本.  
(清) 徐養原, 『論語魯讀考』, 皇清經解續編本, 1972, 臺灣, 復興書局 影印本.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清道光二十八年刻本, 基本古籍庫.  
(清) 陳壽祺, 『五經異義疏證』, 清嘉慶刻本. 基本古籍庫.  
(清) 焦循, 『里堂家訓』, 基本古籍庫.  
(清) 惠棟, 『九經古義』, 清文淵閣四庫全書本, 基本古籍庫.  
祁龍威, 林慶彰(2001), 『清代揚州學術研究』上冊, 台灣, 學生書局.  
唐明貴(2009), 『論語學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_\_\_\_\_(2006), 「〈古論〉、〈齊論〉與〈魯論〉考述」, 『陰山學刊』 第19卷, 第1期.  
唐作藩(1991), 『音韻學教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柳宏(2008), 『清代〈論語〉詮釋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馬建忠(1898), 『馬氏文通』, 1998, 北京, 商務印書館 刊行本.  
倪其心(1987), 『校勘學大綱』,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趙爾巽 等, 『清史稿』, 1928年清史館本, 基本古籍庫.  
陳東(2003), 「關於定州漢墓竹簡〈論語〉的幾個問題」, 『孔子研究』, 第2期.  
(明) 馮夢龍, [김구용 역(2001), 『열국지사전』, 2001년, 서울환사 (NAVER 웹페이지 2018.3.3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6846&cid=42990&categoryId=42990>.  
Benjamin A. Elman (1984), 양휘웅 옮김(2004),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R. Kent Guy (1987), 양휘웅 옮김(2009), 『사고전서』(四庫全書), 생각의 나무].

원고 접수일: 2018년 4월 9일

심사 완료일: 2018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摘 要

---

從《論語正義》探討魯論

李譽晟\* · 李康齊\*\*

漢初,《論語》傳本主要有魯論、齊論和古論三種。其中流傳最爲廣泛的是魯論。漢代張禹、鄭玄等人在魯論的基礎上吸收齊論和古論而編撰出校讎本,從此三論開始混爲一體,分辨不出各本的原貌。劉寶楠的《論語正義》在文獻學上的意義重大,大量保存了漢代至清代歷來豐富的『論語』註疏文獻。本文以該書爲主要參考依據,將魯論和古論、齊論進行比較,考其異同。從文字、音韻和意義上的差異入手進行分析、歸納,總結出魯論的具體類型。與此同時,本文還具體論述了《論語正義》以及清代考證學的學術成就。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